

**서부 지중해 연안 도심 및 관광지에서의 물·에너지 넥서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베니돔과 바르셀로나의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윤혜림

이 논문에서는 스페인의 지중해 연안도시인 베니돔(Benidorm)과 바르셀로나(Barcelona)의 사례에 혼합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물·에너지 넥서스 (WEN)를 전체론적으로 접근하였다.

베니돔의 경우, 지중해 연안에서 대중적인 관광지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선정되었다. 기후 별 시나리오에 따라 가뭄 시에 도시 물 순환의 에너지집약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현재의 수리·사회적 순환(hydro-social cycle)에 에너지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호텔과 레크리에이션 산업 분야의 WEN 을 연구하여 공급이 아닌 수요 측면에서 물 사용의 에너지집약도를 수치화하였다.

바르셀로나 사례의 경우, 도심이 관광대상인 도시의 예로서 선정하였다. 이곳 도시 내 약자인 물·에너지 취약 층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최종사용자의 입장에서 WEN 에 대하여 고찰하여 사회적인 관점을 더하고, 정의와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도시정치생태학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빈부격차에 따른 자원의 접근성의 격차를 다루고,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물과 에너지를 상품화한 현재의 공익사업에서 거버넌스 실패와 제도적 한계를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도심에서 WEN 은 복잡하고 불평등하게 사회와 자연의 관계 속에서 발현되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사회기술적 조건과 생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과정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